

부처님 굿즈 사러 오픈런... 불교에 빠진 MZ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Cover Story '힙'해진 불교, 국제불교박람회 관람객 역대 최대

관련기사 3면



해탈컴퍼니의 번뇌 삭제 키캡키링.

서울불교박람회 25만명 북적
관람객 70% 이상 2030세대

사찰 음식 맛보고 의복 체험
스님과 문답 등 콘텐츠 풍성
재치있는 밈 담은 굿즈 인기

“미래 불안 느끼는 젊은 세대
불교에 관심 갖는 이들 늘어”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불교를 ‘힙한 콘텐츠’로 즐기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어요. 불교 메시지를 담은 굿즈와 밈이 인기를 끌면서 이른바 ‘힙불(힙한 불교)’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종교가 더 이상 신앙의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즐기고 소비하는 문화로 확장되는 모습이에요.

이를 증명하듯, 지난 4월 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는 나흘 동안 약 25만명이 찾았어요. 지난해보다 관람객이 크게 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죠.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구글 트렌드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검색량은 4월 3일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고,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불교박람회’ 해시태그와 함께 방문 후기와 굿즈 소개 영상이 확산됐어요. 짧은 영상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타며 실제 방문으로 연결되는 흐름도 나타났죠.

실제 현장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예상보다 더 활기창했어요. 젊은 나이대 관람객이 가장 많았고 친구나 연인 단위 방문객도 눈에 띄었어요.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사무국 측에 따르면 전체 관람객 중 70% 이상이 2030세대였고, 종교가 없는 방문객도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굿즈 부스 앞은 특히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번뇌정지’ 버튼이 그려진 마우스패드와 ‘업보를 빠르게 정리한다’는 콘셉트의 필사 세트처럼 재치 있는 문구를 담은 상품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익숙한 인터넷 밈을 활용한 디자인 덕분에 종교에 관심이 없던 관람객들도 부담 없이 제품을 살펴보는 모습이었어요. 실제 구매로 이어지기도 했죠. ‘힙한’ 부처님 굿즈를 구매한 김보미 씨(29)는 “엄마의 잔소리같이 친근하고 재

치 있는 문구가 쓰여 있어서 구매했다”고 말했어요.

직접 몸으로 참여하며 이해하는 방식의 프로그램도 많았어요. 전통 불교 의식복을 입어보는 체험부터 스님과 함께 불화를 그려보는 드로잉 부스, 명상 프로그램까지 마련돼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맷돌로 원두를 갈며 ‘번뇌를 덜어낸다’는 의미를 담은 커피를 판매하고 있었고, 다른 부스에서는 염주 팔찌를 직접 만들어보는 참가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종교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방문이라는 김다정 씨(29)와 김유림 씨(29)는 “예전과 달리 규모가 커진 만큼 박람회 구성도 더 다양해지고 쾌적해져서 좋다”며 “부스 별로 분리도 잘돼 있고 구역도 나누어져서 훨씬 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비건 음식을 맛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전했어요.

다양한 체험으로 시작된 방문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위로받는 경험으로 나아갔어요. 스님과의 문답이나 명상 체험에 참여한 관람객들은 조용히 생각에 잠기며 힐링 시간을 가지기도 했죠. 인증 사진을 남기는 것을 넘어 잠시나마 복잡한 생각과 걱정을 비우는 기회가 됐어요.

박람회에서 상담을 진행한 재천 스님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 마음을 다스릴 방법을 찾으려 한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불교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서울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이번 박람회는 오는 6월 11일 대구, 8월 6일 부산에서 이어질 예정이에요. 체험과 콘텐츠를 통해 종교를 새롭게 즐기는 흐름이 전국적으로 점차 퍼질 것으로 보여요. 윤성아인턴기자

중동 산유국이 왜 한국에 석유를 맡길까



세계는 지금
World News



석유비축시설.

한국석유공사

정부의 전화기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석유 비축기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중동 산유국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석유를 직접 채굴해 이미 전 세계로 공급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 저장 공간을 빌려 달라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매장된 석유가 거의 없어 위기 상황에 대비해 평소 일정 수준의 석유를 ‘석유비축기지’에 저장합니다. 이 시설에는 외국 기업의 석유도 함께 보관되죠. 마치 해외 기업이 배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지에 물류센터를 두는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이처럼 외국 기업의 석유를 국내 비축기지에 저장하는 사업을 ‘국제공동비축사업’이라고 합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며 전 세계 석유의 중요한 길목이 막히자 아랍에미리트(UAE) 등 산유국들은 이를 안정적으로 보관할 새로운 거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던 기존 구조가 리스크로 작용했고, 추후 유사한 상황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에요.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달 14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석유비축기지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중동 쪽에서 동북아시아 비축기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해 한국이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음을 제시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의 경제는 원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세계 각지로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즉, 특정 경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지정학적 안정성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체 수송이 가능한 물류 인프라스트럭처가 핵심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충족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한국입니다. 김인

욱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은 중국,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석유 비축기지로서 매력 높은 국가”라고 언급하며 “중동 국가와의 에너지 협력 경험이 상당한 점과 한국·중동의 경제 협력에 방해가 될 만한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적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UAE와 체결한 국제공동비축사업의 일환으로 원유 200만배럴이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된 점은 협력 관계가 현실에서도 입증된 사례입니다. 더불어 그는 “세계적 수준의 정유 시설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보유한 것 또한 차별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단순 경유지를 넘어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같은 사례가 지닌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점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국제공동비축사업을 통해 임대료 수익을 확보해 정부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관된 석유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우선구매권을 통해 위기 발생 시 국내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적 협상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양 실장 역시 “비록 우리 비축량으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그들 물건이라도 우리 마당에 들어와 있고 국내 정유사들이 그 수요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국내 비축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며 그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비축기지 용량은 총 1억4597만배럴로, 이 중 90%가 사용되고 있어요. 증가하는 수요를 수용하고 동북아 석유 물류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약 2000만배럴 규모의 추가 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확충이 이뤄진다면 에너지 안보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연수 인터넷기자

경제공부 필수품
온·오프라인
서점서 만나세요

회장
발행·편집·인쇄인

장대환
장승준

등록번호 : 서울.다50736
발행간격 : 주간
발행소 :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매일경제아카데미 이메일
구독 문의
광고 문의

teen@mk.co.kr
(02) 2000-2383
(02) 2000-2200



“불교 신자 아니지만, 힐링하러 절에 가요”



코레일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모습.

코레일

‘힙불(힙한 불교)’ 현상은 단순히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에요. 이는 우리가 종교를 대하고 즐기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상징하죠. 최근 대중이 종교를 접하는 태도는 엄숙한 ‘신앙’ 위주에서 개인의 ‘경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러한 움직임은 종교를 둘러싼 시장의 성격과 관련 산업 구조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험 중심 소비’의 확산이에요. 요즘 청소년과 청년 세대는 특정 종교에 평생 소속돼 활동하기보다 명상이나 템플스테이 같은 단기적인 체험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색다른 재미를 찾는 방식을 선호해요. 실제로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템플스테이 참가자 중 불교 신자는 약 33%에 불과했지만, 종교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50%를 훌쩍 넘었어요.

기독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아이돌 팬덤 문화를 차용한 ‘예수님 생일카페(생카)’ 행사가 대표적인 사례죠. 이곳에서는 예수님 모습이 담긴 ‘예수님 포토카드(포카)’를 증정하거나 티셔츠, 부채 등 다양한 디자인의 굿즈를 판매해요. 그 덕분에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거부감 없이 카페를 방문해 성탄절 분위기를 만끽하곤 하죠. 종교는 이제 신념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넘어 외부의 다양한 수요를 포용하는 문화적 통로로 자리 잡고 있어요.

나아가 종교의 ‘콘텐츠 산업화’로 확장되며 굿즈 시장에서 그 양상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요. 불교 굿즈 브랜드 ‘해탈컴퍼니’는 최근 몇 년간 분기별 매출이 2~3배씩 급성장했으며 올해는 불교 문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폭발하면서 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지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는 세련된 데님 승복 바지와 ‘그냥 존재하는 님들아...’라는 재치 있는 문구가 적힌 머그컵이 순식

간에 매진되며 MZ세대 관람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주현우 해탈컴퍼니 부대표는 “굿즈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불교가 가진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불교 소품을 통해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일상 속에서 되새긴다”고 설명했어요. 즉, 종교의 깊이 있는 철학이 가볍고 친숙한 콘텐츠와 결합하면서 구매 이후에도 오랫동안 만족감을 주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종교 콘텐츠가 널리 퍼지게 된 배경에는 거대한 ‘힐링 산업’과의 결합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불교 재즈 플레이리스트’ 영상이 올라온 지 3주만에 조회 수 30만회를 돌파할 만큼 인기를 끌었어요. 불교 특유의 ‘평온함’과 ‘치유’의 이미지가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 소비 대상이 된 것이죠.

하지만 종교의 콘텐츠화가 가속화하면서 이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종교가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변질돼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걱정이죠. 특히 ‘무소유’를 핵심 가치로 삼는 불교가 다양한 굿즈와 소비 문화에 집중하는 모습이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아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상엽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았어요. 이 교수는 “불교가 역사 속에서 늘 물질적인 것을 떨리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며 “과거 불교는 오히려 화려하고 풍부한 물질 문화와 예술 유산을 꽃피워왔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힙불’ 현상은 종교가 더 이상 신앙이라는 좁은 틀에만 갇혀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경험 중심의 소비, 치유를 추구하는 힐링 산업 등이 맞물리면서 종교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 콘텐츠’로 다시 정의되고 있어요.

윤성아 인턴기자

힐링 산업과 결합한 종교 지친 현대인 마음을 위로 비신자도 콘텐츠로 향유

실제 템플스테이 참가자 절반 이상이 “종교 없어”

성탄절 예수 생일카페 등 기독교도 콘텐츠로 확장



예수님 생일카페 포스터.

CCC

백화점이 창문과 화장실을 숨기는 이유



영문뉴스/NIE 돋보기

Why Aren't There Any Windows in Department Stores?

Rows of luxury boutiques, trend-setting pop-up stores, thousands of eye-catching products... Department stores seem to have everything in the world. Yet there is one thing that is surprisingly hard to find: it is 'windows'. Instead of windows, there are striking displays of luxury brand advertisements. These are intended to **detach** customers from reality and keep them fully immersed in shopping.



This layout is far more than mere aesthetics.

Rather, it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lens of behavioral economics. Behavioral economics explains that human decisions are highly **sensitive to** environmental cues and psychological triggers. Department stores **take advantage of** this insight by structuring spaces that subtly encourage customers to stay longer and spend more.

Locating restrooms deep inside a store also follows a similar logic. It makes customers walk farther through the store and guides them past displays of new arrivals and promotional items designed to trigger **impulse buying**. Even visitors who simply needed the restroom are led through carefully curated displays.

In the end, consumption is not purely a matter of individual choice, but also a result of the designed environment.

한눈에 보는 기사 요약

화려한 명품관의 행렬, 트렌드를 선도하는 팝업스토어, 눈을 사로잡는 수천 가지의 상품들... 없는 게 없을 것 같은 백화점에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문'입니다. 창문이 있을 법한 자리에는 유명 브랜드의 광고들이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죠. 이는 고객을 현실의 시간으로부터 분리시켜 오직 쇼핑에 몰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단순한 인테리어를 넘어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선택이 주변 환경과 심리적 자극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백화점은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치밀한 공간 전략을 세웁니다.

매장 깊숙한 곳에 화장실을 배치하는 것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늘리고, 그 길목에 화려한 신제품이나 세일 상품을 배치하여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온 사람이라도 매장을 둘러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결국 소비는 개인의 선택인 동시에 백화점에 의해 유도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유용한 단어 및 표현

Detach: '~을 분리하다, 떼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예시로 'You can detach the laptop from the keyboard'라고 하면 '노트북을 키보드에서 분리할 수 있어'라는 의미가 돼요.

Sensitive to: '~에 민감한'이라는 뜻이에요. 본문에서는 인간의 결정이 주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예시로 'She is sensitive to cold'라고 하면 '그녀는 추위를 많이 타(추위에 민감해)'라는 의미가 돼요.

Take advantage of: '~을 이용하다'라는 의미예요. 본문에서는 백화점이 사람의 심리적 특성을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맥락이죠. 예시로 'Don't take advantage of the privilege'라고 하면 '특권을 악용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Impulse buying: '충동구매'라는 뜻이에요. 계획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죠. 예시로 'I regret my impulse buying'이라고 하면 '나는 내 충동구매를 후회해'라는 의미가 돼요.

기사 이해도 체크!

Q. According to the article,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 ① It is hard to find windows in department stores.
- ② Where windows are supposed to be, there are advertisements instead.
- ③ Behavioral economics explains that human decisions are not sensitive to environmental cues and psychological triggers.
- ④ Department stores locate restrooms deep inside the store.
- ⑤ You may see new arrivals and promotional items on the way to the restroom in department stores.

해설: ①·②·④·⑤는 본문 내용과 일치합니다. ③번은 행동경제학이 사람들의 결정이 환경과 심리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본문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형세미연구원

뉴욕행 왕복 항공권이 400만원까지 치솟은 이유



인천~뉴욕 유류할증료 110만원 시대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크게 오르면서 여행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대 56만4000원으로, 인천~뉴욕 왕복 기준 유류할증료만 약 110만원에 달해요.

노선별로 보면 상승폭이 더욱 뚜렷해요. 일본 후쿠오카와 중국 칭다오 등 단거리 노선은 기존 4만2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오르고, 태국 방콕·싱가포르 등 중거리 노선은 12만3000원에서 25만3500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어요. 미국 뉴욕과 워싱턴 등 장거리 노선은 30만3000원에서 56만4000원으로 인상됐어요. 이에 따라 평소 200만원

▶ NIE 준비하기

1. 유류할증료가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방식은 공정한 제도일까요?
2. 항공사들이 유류비 상승을 항공권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까요. 다른 대응 방법도 있을지 논의해 보세요.

대였던 뉴욕행 왕복항공권 비용이 7~8월 성수기 기준 400만원대까지 상승하게 됐어요.

이번 인상 배경엔 국제 유가 상승이 있어요. 최근 항공 유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할증료가 최고 단계까지 올랐기 때문이에요.



꼭 알아야 할
최신 뉴스

청년 맞춤 금융상담, 전국 300곳으로 확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은행권의 재무 상담 서비스가 대폭 넓어졌어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협력해 청년 누구나 무료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함께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현재 20개 지점에서 운영 중인 청년 재무 상담 창구를 올해 안에 284개 지점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참여 은행도 14곳으로 늘어났어요. 기존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소득·지출 관

▶ NIE 준비하기

1. 청년 재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이 나온 배경엔 어떤 사회·경제적 문제가 있었을까요?
2. 금융교육과 상담이 늘어나면 청년들의 금융 습관은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요?(한계도 생각해 보세요.)

리를 비롯해 부채·신용 관리, 자산 형성 등 다양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이번 정책은 청년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금융위는 은행권이 포용금융 차원에서 상담 창구를 자발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56만4000원

국제선 유류할증료 최대치

약 300개

청년 재무상담 가능 점포 수

89%

내신 1.0등급대
의대 지원 비율

내신 최상위권 10명 중 9명 “의대 갈래요”

의대 모집인원이 줄었음에도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시에서 최상위권 수험생의 의대 집중 현상은 오히려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입시업체 진학사의 분석에 따르면 내신 1등급대 자연계열 학생 564명 중 89%인 502명이 의대에 지원했어요. 이는 전년 대비 늘어난 수치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이 의대로 더욱 집중되는 흐름이 확인된 것으로 보여요. 이들은 수시 지원 6장 중 평균 4.48장을 의대에 쓴 것으로 조사됐어요.

반면 1.1등급 이하 구간에서는 의대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1.1등급대는 소폭 감소했고, 1.2~1.4등급대에서는 감소 폭이 더 크게 드러났어요. 의

▶ NIE 준비하기

1. 의대 모집인원이 줄었는데도 최상위권 쏠림이 더 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의대 정원 변화나 지역의사제 같은 정책이 입시 경쟁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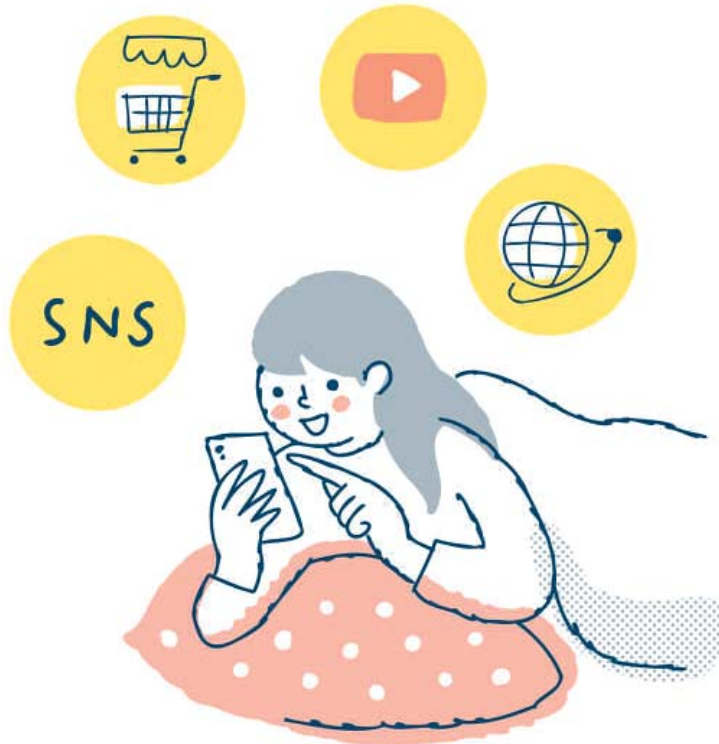
대 모집인원이 줄어들면서 상위권 내부에서도 선택이 갈린 것으로 분석돼요. 인문계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어요. 내신 1.0등급대 인문계 학생의 29.2%가 의대에 지원했고, 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52.8%가 보건계열 학과에 지원했어요.

배윤경 기자

디지털 세상서 똑똑한 소비... 기회비용 따져야



소비자원 기고



게티이미지뱅크



‘소비생활과 경제’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 소비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제로웨이스트 상점, 텀블러 사용, 중고 거래 플랫폼과 같은 친환경 소비가 확산되는 한편 비대면 온라인 소비는 일상화됐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소비, SNS와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한 소비 문화, 간편결제와 구독 경제까지 더해지며 소비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은 이미 시장에서 활발하게 소비 활동을 하는 ‘소비 세대’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은 디지털 거래 경험은 많지만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지식과 판단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매 의사결정이나 소비자 피해 대응과 같은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소비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스스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올바르게 선택해야 할 책임도 지닌다. 청소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선택이 환경과 사회, 기업 윤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하는 소비자 시민성의 함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자율 교육과정 선택 과목인 ‘소비생활과 경제’는 청소년이 주체적인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단원인 합리적 구매 의사결정과 재무관리는 총 3개의 중 단원으로 구성된다.

첫째, 소비자 정보 유형과 정보 원천을 알아보는 단원은

디지털 환경에선 광고와 정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SNS와 맞춤형 광고는 소비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생들은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소비자 정보 활용 역량이다.

둘째,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 과정 단원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대안을 비교하고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실제 생활과 연결된 소비 상황을 바탕으로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적용하고, 자신의 가치와 필요에 맞는 소비 계획을 세워보게 된다. 또래와 SNS의 영향을 받는 소비 사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은 청소년의 소비 인식을 확장시킨다.

셋째, 재무관리와 금융 생활 단원은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미래를 고려한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경험은 청소년기부터 이뤄져야 한다. 용돈 관리 계획을 세우고 저축과 투자 개념을 이해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금융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장기적인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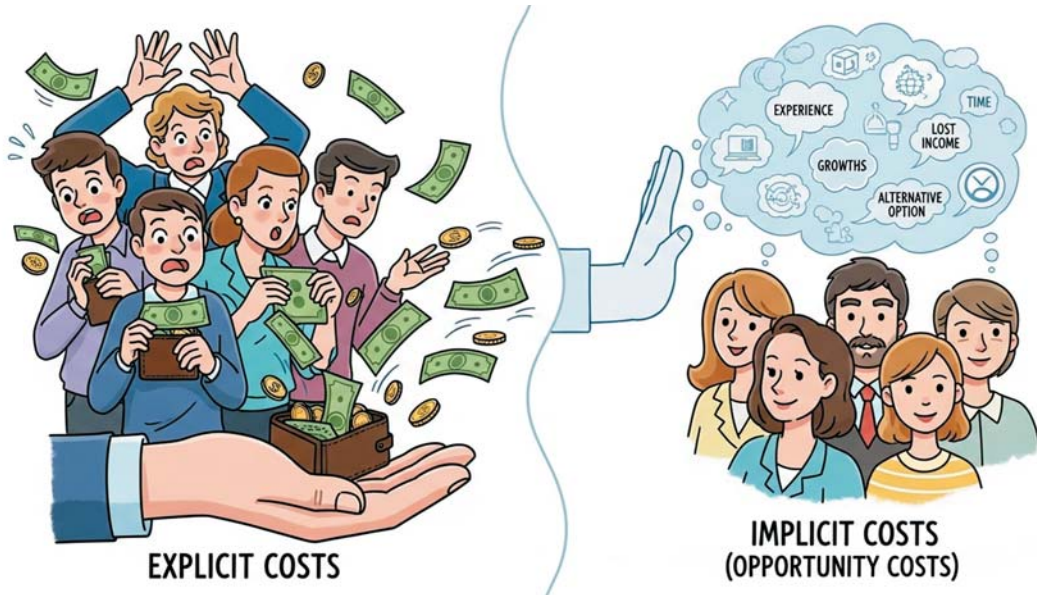
이 단원의 수업은 학생 참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 활동에서 시작해 짝 활동과 모둠 활동으로 확장되며 탐구와 실천, 성찰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어진다. 또한 실제 소비 사례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자료는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학습의 몰입도를 높인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소비를 단순한 구매 행위가 아니라 선택과 책임이 수반되는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해하게 된다. 나아가 자신의 소비를 성찰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기르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갖추게 된다. 더불어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는 책임 있는 소비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필요한 성숙한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임흥순 옥천중학교 교사

치킨 한 입의 진짜 대가는? ... 일상 속 '한계효용'



최병일 교수님의
길 위의 경제학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Whisk

기회비용은 일반인에게 제일 잘 알려진 경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사회나 경제 시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조차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생의 굵직한 결정을 내릴 때 기회비용을 진지하게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결정할 때 우리는 '등록금'이라는 눈에 보이는 비용뿐만 아니라 대학에 가는 4년 동안 취업해서 벌 수 있었던 '예상 소득'까지 포함하여 기회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 앞에서는 기회비용을 따지는 사람들이 정작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 작은 선택들 앞에서는 이 개념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유로운 휴일, 소파에 누워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며 시간을 보낼 때, 혹은 늦은 밤 시간 중동적으로 맵고 짠 정크푸드를 시켜 먹을 때를 떠올려볼까요? 이때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이 치킨을 먹음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무엇일까?"라고 진지하게 고민하시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루를 무의미하게 날려버리거나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는 순간에는 기회비용의 알람이 전혀 울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심리와 뇌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보다 눈에 확연히 보이는 명시적 비용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명시적 비용은 내 지갑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을 의미합니다. 반면 암묵적 비용은 현금의 지출은 없지만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대안의 가치입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늘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합리적인 계산을 한다고 가정했지만, 현대의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완벽하게 이성적이지 않으며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와 즉각적인 보상에 훨씬 더 끌리는 존재라는 사실에 뼈저리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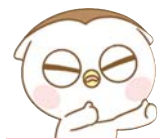
경제 교과서에 따르면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Margin)에서 생각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한계'란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딱 한 단위 더' 추가할 때 발생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이미 지나간 일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행동을 한 번

더 했을 때 추가로 치러야 하는 대가, 즉 '한계비용(Marginal Cost)'을 엄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한계비용'을 계산할 때 늘 완벽하게 이성적인 것은 아니며, 그 비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매우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휴일 소파에서 1시간 더 뒹굴거리기로 선택하거나, 늦은 밤 정크푸드를 한 입 더 베어물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희생이 바로 그 순간의 한계비용입니다. 인간은 이 추가적인 비용이 지갑에서 당장 돈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명시적 비용'일 때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인 손실로 체감합니다.

만약 소파에 1시간 더 누워 있을 때마다 통장에서 현금이 1만원씩 빠져나간다면, 우리는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유혹들의 한계비용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비용'의 형태를 띠니다. 소파에서 허비하는 추가적인 1시간의 잠재적 가치나, 야식 한 입으로 인해 서서히 깎여나가는 내일의 컨디션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뇌는 당장 눈앞에서 줄어드는 명시적인 한계비용 앞에서는 즉각적으로 경계 경보를 울리지만, 형태가 없는 암묵적인 한계비용은 '실제 손실'로 느끼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합리적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는 '한계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눈에 보이는 비용에만 예민하게 반응하고 보이지 않는 희생에는 한없이 둔감한 편향성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 삶의 자잘한 선택들에 적용하기는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일상 속 기회비용들이 경제학의 복리 효과처럼 눈덩이같이 불어난다는 점입니다. 주말마다 소파에서 날려버린 아르바이트의 잠재적 가치와 잦은 야식으로 망가진 수면의 질이 단 하루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등학교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같이 반복되어 누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 순간 즉각적인 한계효용만 좇아 암묵적 비용을 외면한 학생과, 눈앞의 유혹을 참아 내며 긍정적인 기회비용을 복리로 축적한 학생 사이에는 훗날 결코 좁힐 수 없는 거대한 지적·체력적 격차가 벌어 집니다.

강원대학교 교수



경제용어 CHECK

암묵적 비용

암묵적 비용은 지갑에서 실제 현금이 지출되지는 않지만, 특정 선택을 위해 포기해야만 하는 대안의 잠재적 가치를 의미한다. 회계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정확한 기회비용을 계산하려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요소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상가에서 직접 창업할 때 그 상가를 남에게 임대해주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 수익이 바로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몸에 안 좋은 건 다 아는데... 담배가 살아남은 이유



임하빈 선생님의
돈이 움직인 세계사



게티이미지뱅크

사람들은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게 되었을까요? 생각보다 훨씬 늦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잡지에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담배를 피우는 전면 광고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들이 카멜을 피웁니다.” 의사가 선택한 담배라면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1953년,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입증한 논문들이 쏟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해 12월, 미국 최대 담배 회사들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뉴욕의 한 호텔에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나온 전략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과학을 의심하게 만들고, 법을 막자.

◆ 과학을 흐려라

담배 회사들이 선택한 전략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흡연이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거짓말은 언젠가 들키지만, 불확실성은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면 사람들은 결론을 유보하기 마련입니다. 그 유보가 담배 회사들에게는 곧 시간이자 돈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담배 회사들은 1954년 담배산업연구위원회(TIRC)를 설립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독립적인 과학 연구기관처럼 보였지만, 자금은 전액 담배 회사들이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실제 임무는 흡연과 암의 연관성에 회의적인 과학자들을 찾아내 고용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아직 결론을 내리기 이르다”는 신문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유명 대학교수, 저명한 의사의 이름이 붙은 기사는 신뢰를 주었습니다. 독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같은 해 1월에는 미국 전역 448개 신문에 전면 광고도 동시에 실었습니다.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 광고는 4300만명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신문 광고비, 고용된 과학자들의 급여, 가짜 연구위원회 운영비. 돈은 여론을 흐리는 데 필요한 모든 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 법을 막아라

담배 회사들은 의회에도 접근했습니다. 담배를 규제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

다. 담배 회사들은 전직 의원과 고위 관료 출신의 전문 로비스트를 대거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의회 안팎을 누비며 담배 규제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의원들을 찾아가 설득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의원들의 선거캠프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는 것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뚜렷했습니다. 1964년 미국 정부가 흡연의 위험성을 공식 인정한 뒤에도 TV 담배 광고가 금지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1965년에는 담배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원안에 있던 ‘암 유발’ 문구가 최종본에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로비의 흔적이었습니다. 1990년 한 해에만 담배 업계가 의회 로비에 쓴 돈은 7000만달러가 넘었습니다. 과학을 흐리고, 법을 막고, 두 개의 축이 동시에 돌아가는 동안 담배는 계속 팔렸습니다.

◆ 이미 알고 있었다

문제는 담배 회사들이 진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훗날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내부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962년 담배 회사 소속 과학자 앨런 로드먼은 내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흡연을 건강 위험으로 지목하는 증거는 압도적이며, 이를 반박하는 증거는 미미하다.” 하지만 1994년 주요 담배 회사 CEO 7명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란히 서서 선서한 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제품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서하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 돈으로 버틴 40년

미국 정부가 흡연의 위험성을 공식 인정한 것은 196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배 회사들의 로비는 그 이후에도 수십년간 계속됐습니다. 그사이 수천만 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과학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돈이 그 목소리를 덮었습니다.

담배 로비의 전략은 이후 다른 산업에도 그대로 복사됐습니다. 설탕 업계, 석유 업계가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에 불리한 과학에 맞섰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발명한 이 전략의 이름은 훗날 ‘담배 플레이북’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 플레이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산현초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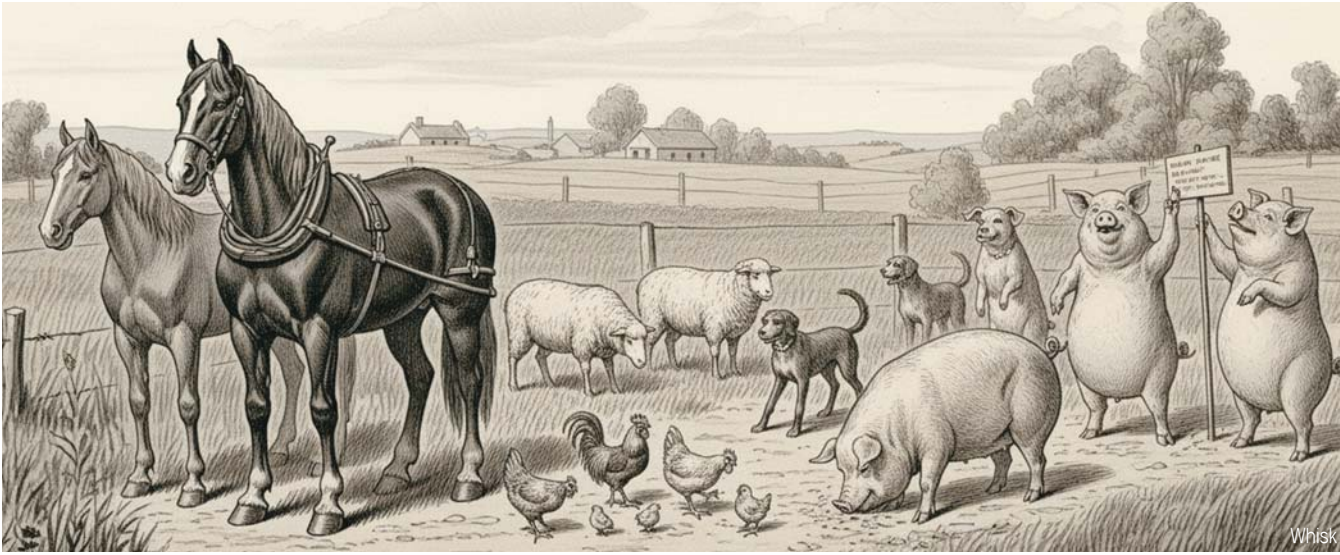


역사용어 CHECK

로비

특정 집단이 자신들에 유리한 법이나 정책을 만들도록 정치인이나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 미국에서는 합법적 직업이며 등록제로 운영된다.

지배자가 된 동물들 ... 인간 약점을 반사하다



윤영소 선생님의
내일을 여는 책갈피

조지 오웰 '동물농장'

소설의 배경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매너 농장'. 어느 날 밤, 농장의 동물들이 헛간에 몰래 모입니다. 인간에게 일만 하다 죽어가는 삶을 더는 참을 수 없다! 늙은 수탉 메이저의 연설이 한곳에 모인 동물들의 눈을 반짝거리게 합니다.

늘 술에 취한 농장 주인 존스씨가 동물들을 굶기고 괴롭히자 메이저 영감의 호소에 동물들이 흔들립니다. 돼지, 말, 닭, 양, 개, 저마다 생김새도 목소리도 다르지만 이날 밤만큼은 하나가 돼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혁명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마침내 인간을 농장에서 몰아내고, 농장 주인이 동물들로 바뀌고 맙니다.

인간을 쫓아내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데 성공하죠! 농장 이름도 '동물농장'으로 바꾸고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수확한 곡식을 공평하게 나눠 먹어요. 담벼락에는 멋진 '7계명'도 적어 놓았답니다. 그중 제일 유명한 문구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것이었어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945년 영국에서 출간된 이 작품은 겉보기엔 단순한 우화처럼 보이지만, 읽다 보면 이건 그냥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곧 눈치채게 되죠. 조지 오웰은 소설가이면서 동시에 시대를 꿰뚫는 눈을 가진 비평가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삶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글을 쓰고, 권력이 언어를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집요하게 파헤쳤던 작가예요. 그가 당시 소련에서 벌어지던 혁명과 독재를 이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전혀 몰라도 괜찮아요. 이 책이 던지는 질문들은 특정한 시대와 나라를 훌쩍 뛰어넘는,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니까요.

혁명에 성공한 동물들은 곧바로 7계명을 만듭니다. 그 핵심은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는 것. 두 발로 걷는 인간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죠. 모두가 동등하게 일하고 함께 나누고 누구도 누구 위에 군림하지 않는 세계, 그 꿈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초반의 농장은 그렇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다들 힘을 모아 일하고 수확물을 고르게 나누고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루를 마칩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영리한 돼지들(특히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의 돼지)이 점점 더 많은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엔 그럴듯한 이유가 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알기 때문에"라거나 "전체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라는 식으로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7계명이 슬그머니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에 새겨 놓은 문장과 달라졌는데도 따지면 "원래 그랬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눈치채기 어렵게, 아주 조금씩이요.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 중 하나는 스킨러라는 돼지입니다. 나폴레옹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이 돼지는 말을 정말 잘해요. 어떤 불편한 상황도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의심스러운 일도 논리 있어 보이게 포장합니다. 동물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낚시를 차릴 때마다 스킨러가 등장해 몇 마디 늘어놓으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흠여집니다.

말(馬) '복서'도 중요한 캐릭터예요. 최고의 일꾼인 복서는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아요. 무슨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라는 말을 되뇌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성실함과 순수함이 눈부시게 느껴지다가 복서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순간, 많은 독자가 그 대목에서 가슴이 무너진다고들 해요. 기분 좋게 술술 읽다가 갑자기 뭔가 무거운 것이 가슴을 짓누르는 그 느낌, 이 책이 주는 특별한 경험 중 하나입니다.

등장인물들이 동물이라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처럼 술술 읽히지만, 마지막 책장을 덮을 때쯤이면 서늘한 느낌의 반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돼지가 인간처럼 웃을 입고 거울을 보는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조지 오웰의 또 다른 작품 '1984'를 연이어 읽는 것도 매우 탁월한 선택이 될 겁니다. 미래 사회를 무섭도록 예리하게 묘사했어요. '빅 브라더'라는 존재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세상 이야기를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디지털 세상이 떠올라 소름이 돋을지도 몰라요.

그는 '영국 산문의 정수'로 불릴 만큼 아주 간결하고도 힘 있는 문장을 쓰는 것으로 명성을 날렸는데, 그의 에세이들을 읽어보면 글을 어떻게 써야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지 배울 수 있죠. '동물농장'과 '1984'는 분량도 짧으니 조지 오웰이라는 걸출한 작가를 만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전 남해상주중 교장

촉법소년은 무적? ... 소년법의 숨겨진 진실



박기태 변호사의
법으로 떠나는 모험



게티이미지뱅크

뉴스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건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난 촉법소년이라 감옥에 안 가는데?”라며 경찰이나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사에는 어김없이 “소년법을 폐지하라”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서 감옥에 보내라”는 분노의 댓글이 달립니다. 일부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처벌을 피하는 ‘방패’ 처럼 이 제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촉법소년이란 제도를 만들었고 왜 바꾸자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 촉법소년 나이를 바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법은 왜 형사미성년자를 만들었을까?

우리나라 형법 제9조를 보면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날을 기준으로 만 14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는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성인과 똑같은 형벌(징역 등)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도를 두었을까요? 형법은 누군가에게 형벌을 부과하려면 그 사람이 스스로 ‘내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완벽히 깨닫고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이성적인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때 일정한 나이와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법은 10대 초중반의 청소년이 아직 뇌과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이 책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이들에게 전과 기록을 남기는 대신 교육과 치료를 통해 올바른 어른으로 자라날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 바로 이 제도의 핵심 철학입니다.

왜 지금 나이를 낮추자는 이야기가 나올까?

최근 만 14세란 기준을 만 13세나 만 12세로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체 발달이 빠르고 스마트폰과 인터넷 발달로 정보 접근이 쉬워지면서 과거 보다 이른 나이에 옳고 그름을 인식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일부 청소년 범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점점 조직

적이고 잔혹해지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를 범죄에 악용하는 청소년이 생겨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이를 낮추는 것만이 답일까?

그렇다면 나이를 낮추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외 사례를 보면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앞서 북지강국 덴마크는 2010년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형사책임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4세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범죄 억제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은 14세 청소년의 재범률이 증가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돼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나 취업이 불가능해지자 다시 범죄를 일으킨 겁니다. 결국 덴마크는 2년 만인 2012년에 형사책임 연령을 15세로 되돌렸습니다.

이 사례는 가정 폭력, 빈곤, 학교 폭력 등 청소년 범죄 원인을 손보지 않고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결코 올바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낙인 효과와 사회 부적응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진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지 않을 뿐 소년법에 따라 엄격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 소년원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소년원에서는 외출이 제한되고 엄격한 규율과 통제 속에 생활합니다. 길게는 2년 동안 수용돼 결코 가벼운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경험은 큰 제약입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우리 사회가 미성년자에게 베푸는 관용이자 간절한 부탁입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 다시 바로 설 기회를 남겨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느리게 써야 깊어지고 길어진다

요즘 학생들은 글을 빠르게 씁니다. 수행평가 시간에 맞추기 위해, 분량을 채우기 위해, 떠오른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붙잡기 위해 서둘러 적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이상하게도 결과는 기대와 다릅니다. 분명 열 줄을 썼는데, 읽어 보면 세 줄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글은 속도로 완성되는 작업이 아니라 밀도로 완성되는 작업입니다. 한 번 더 바라보고, 한 단어를 더 고르고, 한 장면에 조금 더 머무는 순간 문장은 달라집니다. 빨리 쓰면 사실만 남고, 느리게 쓰면 의미가 붙습니다.

느리게 쓴다는 것은 속도를 늦춘다는 뜻이 아니라 머무르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 피부에 닿는 감각을 한 번 더 붙잡는 순간, 문장은 깊어집니다.

이번 화에서는 '느리게 쓰기'를 직접 실험해 봅니다. 하나의 문장을 다섯 번 다시 쓰는 리라이팅(Rewriting) 과정을 통해 속도를 줄일 때 문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상수 선생님의 글쓰기 교실

지후: 삼촌, 난 왜 이렇게 글이 짧을까? 분명 열심히 썼는데 분량이 안 나와.

삼촌: 얼마나 빨리 쓰는데?

지후: 생각나는 대로 바로 써. 멈추면 더 못 쓸 것 같아서.

삼촌: 그게 바로 이유일 수 있어. 글이 얇은 건 재능 때문이 아니라 속도 때문일지도 몰라.

지후: 빨리 쓰면 좋은 거 아니야? 시험 시간도 부족한데.

삼촌: 초고는 빨리 써도 괜찮아. 생각을 쏟아내는 단계니까. 그다음 단계에서는 반드시 느려져야 해. 깊이는 속도를 줄일 때 생긴다. 오늘 한번 실험해 보자.

지후: 또 실험이야?

삼촌: 그래. 한 문장을 다섯 번 다시 써보자. 주제는 단순하게, "비 오는 날 학교에 갔다."

◆ 5회 리라이팅 실험·느리게 쓰기의 해부

1차 문장 "비 오는 날 학교에 갔다."

삼촌: 정보는 전달됐지만, 아무 장면도 보이지 않아. 독자는 그날을 상상할 수 없어.

2차 문장·감정 추가 "비 오는 날이라 기분이 조금 가라앉은 채 학교에 갔다."

지후: 감정이 붙으니깐 조금 살아난 느낌이야.

삼촌: 맞아. 사실에 감정이 더해지면 문장은 한 겹 깊어지게 돼.

3차 문장·감각 추가 "차가운 빗방울이 교복 소매를 적셨고, 기분이 가라앉은 채 학교에 갔다."

삼촌: 이제 촉감이 생겼지. '차가운'이라는 단어 하나가 피부의 느낌을 불러내. 독자가 장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

4차 문장·구체적 장면 추가 "차가운 빗방울이 교복 소매를 적셨고, 운동장에는 물웅덩이가 번져 있었다. 괜히 마음도 젖은 듯한 채로 학교에 들어섰다."

지후: 운동장이 보이네. 그냥 '학교에 갔다'보다 훨씬 선명해.

삼촌: 장면이 생기면 글은 자동으로 길어진다. 억지로 늘린 게 아니야. 본 것을 천천히 적었을 뿐이지.

5차 문장·의미 확장 "차가운 빗방울이 교복 소매를 적셨고, 운동장에는 물웅덩이가 번져 있었다. 물을 피해 걷는 아이들 사이로, 나도 괜히 마음을 접은 채 교문을 넘었다."

삼촌: 이제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분위기가 났어. 빗물과 마음이 연결됐지.

지후: 같은 하루인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다.

삼촌: 이게 속도를 줄인 결과야. 한 번 쓰고 멈추고, 다시 읽고, 한 단어를 더 고른 거야. 느리게 썼을 뿐인데 깊어졌지.

지후: 그럼 느리게 쓴다는 건 정확히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천천히 쓰라는 말이야?

삼촌: 막연하게 천천히 쓰라는 뜻은 아니야. 방법이 있어. 첫째, 멈추기. 한 문장을 쓰고 바로 다음 줄로 넘어가지 말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야. "여기서 더 볼 수 있는 건 없을까?"

둘째, 감각을 추가하기.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 코끝에 스치는 냄새, 피부에 닿는 느낌을 떠올려 본다. 감각은 글의 밀도를 높인다.

셋째, 의미를 한 겹 더 얹기. 이 장면이 내 감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 단순한 기록을 해석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지후: 속도를 줄이면 생각이 한 겹 더 생기는 거네.

삼촌: 맞아. 빨리 쓰면 사건만 남고, 느리게 쓰면 마음이 따라와.

지후: 그래서 깊어지고, 길어지는 거구나.

삼촌: 그렇지. 분량은 억지로 늘리는 게 아니야. 장면 앞에 오래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늘어나.

지후: 나 오늘부터는 한 문장을 다섯 번씩 다시 써볼래.

삼촌: 그게 훈련이야. 깊이는 한 번에 생기지 않아. 멈춘 자리에서 조금씩 자라는 거지.

지후: 이제 알겠다. 빨리 쓰는 건 기록이고, 느리게 쓰는 건 생각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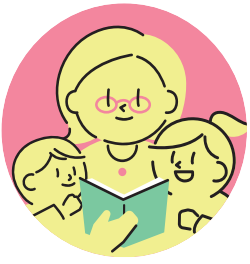
삼촌: 정확해. 글은 속도로 평가받지 않아. 밀도로 평가받게 돼. 교육실천이음연구소연구위원

글쓰기 꼭꼭!

왜 느리게 써야 문장이 깊어지고 길어지는가?

1. 빨리 쓰면 사실만 남고, 느리게 쓰면 감정과 해석이 더해진다.
2. 느리게 쓰는 법: 한 문장 뒤 멈추기, 감각·묘사 언어 추가하기, 의미를 한 겹 더 얹기
3. 5회 리라이팅 실험은 문장의 깊이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눈에 보이게 해준다.
4. 분량은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면을 오래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길어진다.

“사람들 떠나자 마음에 가시가 돋았다”



하미와 동이들의
비틀비틀 지식모험 ①



해님은 여느 때와 같이 유리구슬 바람 언덕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살금살금 한 발짝 한 발짝씩 해 돋는 마을(동쪽 마을)에서 제비마을(남쪽 마을)로 걸어갔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해님과 달님이 싸우지 않고 서로 밸런스를 맞추는 날이었어요.

해님은 아리온에게 윙크를 하며 휘파람을 불었어요.

“오늘은 공평한 날이라 참 기분이 좋아. 밤과 낮이 같은 날이거든.”

아리온이 인사를 건넸어요.

“무사히 다녀와 다행이에요. 비밀 여행은 어땠어요?”

해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어요.

“세상의 변화를 보았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아리온이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을 하고 물었어요.

“뭐가요?”

해님이 신이 나서 여행담을 들려주었어요.

“내가 제비마을로 여행을 시작했을 때는 나뭇잎들이 초록색이었어. 그런데 한 발짝씩 땀 때마다 나뭇잎 색들이 변하더라고. 풋사과 같은 단풍에서 깊고 성숙한 단풍으로. 발자국을 땀 때마다 나뭇잎들이 하나씩 돌씩 떨어져 나중에는 별거송이가 되어 양상한 가지들만 남게 되었어. 그러더니 은빛송이가 나뭇가지에 소복이 앉아 노래를 부르더라고. 내가 고개를 내밀어 인사를 하면 반짝이면서 손을 흔들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맑고 투명한 연둣빛 새싹이, 야무지고 단단한 불그스레한 새싹이 살며시 고개를 들어 인사를 하더라고. 매 순간이 참 아름다웠어.”

아리온이 말을 했어요.

“정말 멋지네요. 다음에는 나도 데려가요.”

해님이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지냈어?”

아리온이 신나서 말을 했어요.

“그동안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눈빛종이를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제법 유명해졌거든요. 모르는 사람들도 나를 알아보니 흥분이 되더라고요.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기분일까요 뭐 그런 거요.”

해님이 미소 지으며 말을 했어요.

“아주 잘됐구나. 네가 너무 유명해져서 보기 힘든 거 아니야?”

아리온이 풀이 죽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근데…근데 말이예요. 이제 점점 시시해지고 있어요.”

해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서 어찌지? 나는 이제 기러기마을로 떠나야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구나.”

아리온이 힘없이 말을 했어요.

“그렇게 짧게 있다 가는 거예요? 나는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기나 해요?”

해님이 말을 이었어요.

“나는 세상을 골고루 비춰줘야 해. 그래야 우리 지구가 방긋 웃고, 이 커다란 우주도 비로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

아리온은 서운한 마음에 해님에게 끝내 안녕이라는 말도 건네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기만 했지요.

아리온은 다시 말할 상대가 없어서 외로웠어요. 사람들의 반응도 더 이상 뜨겁지 않았어요. 눈빛종이를 오물오물 먹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만 봐도 귀엽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리온의 작은 실수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심지어 아리온에게 나쁜 말과 거친 행동도 거침없이 하기도 했어요.

“저게 소식을 전하는 말이라고? 말도 안 돼. 영무새같이 지껄이기만 하는구먼” 하고 ‘트게사 트게사’ 침을 뱉기도 하고, “내가 묻는 질문에는 대답도 못하고 엉뚱한 말만 하잖아. 배터리가 다 돼서 멈춰버린 장난감 로봇 같아” 하면서 몽둥이로 아리온의 주둥이를 때리기도 했죠. “바보 같은 녀석을 뭐 그리 대단하다고들 난리인지? 실망스럽기만 하구먼.” 아리온의 다리를 ‘뽕뽕’ 차기도 했어요.

그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가시가 되어 아리온의 마음에 꼭꼭 박혔어요. 심장이 쭈시고 아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해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해님을 불렀지만 메아리만 울려 퍼졌어요. 아리온은 자기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은 대꾸하지 않고 참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노인 무임승차는 ‘복지’로 봐야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이주은

최근 지하철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이나 병원을 오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동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일상을 이어 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찬성합니다.

노인에게 이동은 단순한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병원 방문, 장보기, 복지시설 이용, 사람을 만나는 활동이 모두 이동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동이 줄어들면 사회와의 접점이 약해지고 고립과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임승차 제도는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니라 노인이 사회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현실적인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혼잡 시간대 적용 제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이용 횟수 조정, 교통카드 기반의 관리 체계 강화 등은 노인의 이동권과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고립을 줄이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배제가 아니라 연결에 가까운 사회가 아닐까요?



노인 이동 제약엔 더 큰 문제

밀성제일고등학교 3학년 하예진

최근 전국의 교통공사들이 지하철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가리키며 어르신들에게 적자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제도 개편으로 해결될 수 없기에 무임승차 제도의 제한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입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연금에만 의존하는 어르신들에게 몇천 원의 지하철 요금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만약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노인의 이동에 제약이 생길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적 소외나 건강 악화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임승차는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준을 설립해 혜택에 제한을 둔다면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부당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영상의 손실을 이유로 혜택을 축소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적자 4488억...제도 바꿔야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김은솔

우리나라는 인구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간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이동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고령 인구가 급증한 현실에서도 제도 도입 당시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재정 부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은 2025년 기준 4488억원으로 2021년 대비 약 61% 급증했습니다. 무임승차 인원이 전체 이용자의 17.5%에 달하는 현 상황은 이 제도가 소수 지원을 넘어 운영 기관 전체의 ‘구조적 재정 위기’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도 큼니다. 현행 제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 지원을 제공하다 보니 정작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복지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타 세대와의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고립 완화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 목적이 반드시 ‘전면 무료’라는 수단으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된 인구 구조에 맞춰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엔 이용 제한을

Yew Chung International School Chongqing 10학년 원아름

최근 고유가와 재정 부담이 겹치면서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그대로 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임승차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지켜야 하지만 모든 제도가 시대 변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은 4488억 원에 달했습니다. 무임승차 손실은 서울 지하철 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규모는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부담을 계속 공기업이나 지자체에만 떠넘기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1.2%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나이만을 기준으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은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령층 내부에서도 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모든 노인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무임승차 제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혼잡 시간대에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단계적으로 나이를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뜻입니다. 복지는 무조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실벌 ‘한 지붕 두 가족’ … 서울 라이벌전의 경제학



두산 베어스·LG 트윈스
어린이날 시리즈



두산 베어스 선수들.



연합뉴스 LG 트윈스 선수들.

연합뉴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매년 5월 5일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잠실구장)에선 양 팀 어린이 팬들의 동심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승부가 펼쳐져요. 바로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어린이날 시리즈’ 때문입니다. 어린이날 시리즈는 단순한 라이벌전을 넘어 한국프로야구(KBO) 리그의 확실한 흥행 이벤트입니다.

같은 구장을 홈 구장으로 사용하는 두산과 LG는 KBO 리그를 대표하는 라이벌 가운데 하나예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관람객 성향 조사 결과에서도 두산 팬은 LG를, LG 팬은 두산을 1순위 라이벌로 선택했죠. 그중에서도 어린이날에 열리는 맞대결은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뜨거워요. KBO도 이런 열기를 반영해 1998년부터 두 팀이 어린이날에 맞붙도록 일정을 편성하고 있어요.

어린이날 시리즈는 이름값에 걸맞게 약 2만4000석 규모의 잠실구장을 거의 매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지난해 어린이날에 열린 두 팀의 경기 역시 시작 1시간30여 분 전에 입장권이 모두 팔렸죠. 올해 KBO 리그 관중이 역대 최단 기간인 14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한 만큼 이번 어린이날 시리즈 때도 만원 관중이 들어설 가능성이 큼니다.

어린이날 시리즈의 열기는 두 팀 간 라이벌 구도뿐 아니라 최근 프로야구 전반의 흥행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어요. 지난해 프로야구는 국내 프로스포츠 최초로 1200만 관중을 달성하기도 했죠. 이처럼 야구장에 구름 관중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는 야구가 다른 문화생활에 비해 압도적인 가성비로 다가와서예요. 영화관 등 다른 여가 활동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야구는 3~4시간 동안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함께 응원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한 숏폼 문화도 야구 흥행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기 영상을 활용한 2차 창작이나 공유가 자유롭지 않았

어요. 팬들은 물론 구단조차 경기 영상을 마음대로 활용하기 어려웠죠. 그러나 2024년부터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TVING)과 KBO가 연 450억원 규모의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을 맺은 후 팬들은 40초 이내 영상을 SNS에 업로드할 수 있게 됐어요. 짧고 강렬한 영상들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새로운 팬들 유입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이벌전의 상징성과 최근 야구 흥행이 맞물리면서 어린이날 시리즈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로 직결되고 있어요. 관람객 성향 조사에 따르면 LG 팬은 한 경기당 5만3109원을, 두산 팬은 한 경기당 4만8957원을 소비하고 있어요. 양 팀 팬들의 1인당 관람 지출액이 5만원 안팎임을 고려하면 잠실구장이 전석 매진될 경우 한 경기당 총소비 규모는 12억원 수준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 시리즈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대거 몰리는 만큼 실제 현장 소비는 평균치를 웃돌 가능성도 큼니다. 자녀를 위한 어린이용 유니폼이나 응원 도구, 기념 먹거리 등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구단 역시 어린이날을 겨냥한 기념 굿즈들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요. 지난해에도 두산은 어린이날 시리즈에 맞춰 모바일 게임 ‘브롤스타즈’와 협업한 ‘브롤스타즈데이(DAY)’를 열고 관련 한정판 굿즈들을 판매했습니다.

올해 열리는 어린이날 시리즈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녔어요. 우리가 아는 현재의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마지막 어린이날 맞대결이 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서울시의 스포츠·MICE 복합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현재의 야구장 자리에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돔구장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두 팀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서울올림픽주경기장을 대체 구장으로 사용해야 해요. 야구팬들의 청춘과 열정이 묻어 있는 지금의 익숙한 뷰에서 두 팀이 맞붙는 어린이날 풍경은 올해가 마지막인 셈입니다.

김준영 인턴기자

내신 5등급제 시대, 대입 열쇠는 결국 수능

2022교육과정 도입, 고교학점제 시행, 내신 5등급제란 변화는 기존 입시 지형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신 1등급 비율이 기존 4%에서 10%로 확대되면서 변별력이 약해져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때 수능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의 진단입니다.

- Q. 최근 입시 환경 변화의 핵심은 어떤 것일까요?
 A. 가장 큰 변화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입니다. 변별력이 약화돼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비교과 활동으로 이를 보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주요 대학이 수시에서 비교과 평가를 강화하거나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 Q. 그렇다면 비교과 활동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A. 비교과에 '올인'하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2022교육과정의 핵심은 전공별 권장 이수과목과 해당 과목에서의 학업 성취도입니다. 대학은 학생이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충실히 이수했는지, 그 성취도는 어떠한지를 평가합니다. 2015교육과정 당시 일부 상위권 대학이 권장 이수과목을 발표했는데, 2022교육과정에서는 전국 50여 개 대학으로 확대됐습니다. 즉, 교과 중심의 준비가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Q. 수시 전형에서 수능의 중요성은 어떤가요?
 A. 수능은 여전히 '합격의 필수 조건'입니다. 2027학년도 상위 15개 대학 기준 수시 모집 인원의 57.3%가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합니다. 학생부교과나 논술 전형은 물론, 학생부종합 전형에서도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이 대표적이며 경희대 역시 2028학년도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수능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셈입니다.

2027학년도 정시 전형 학생부 반영 대학의 평가 내용 및 영향력

대학	평가 내용
서울대	학교생활기록부 전체 항목을 정성적 평가
연세대	교과 등급 정량적 평가
한양대	이수과목·이수단위, 출결
중앙대(89전형)	출결
경희대(수능+학생부형)	수학·과학 이수단위, 교과 정량 평가

※ 중앙대, 경희대는 2028학년도부터 선발 예정.

- Q. 정시 비중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A. 일부 정시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서울 주요 대학은 여전히 40% 이상을 정시로 선발해야 합니다. 고교정상화 기여 대학에 선정된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만 2028학년도부터 30%까지 축소가 가능할 뿐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수능 전형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Q.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이 확대된다는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A.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고 있지만 평

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수과목·이수단위, 출결을 반영하거나 내신 성적을 정략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신 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연세대는 총 50점 중 40점이 기본점수이고, 등급별 배점은 1·2등급 7점, 3·4등급 6점, 5등급 5점으로 큰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경희대 역시 3학년 2학기까지 상위 18개 과목만 반영하고 반영 지표도 등급과 성취도 중 유리한 성적을 적용합니다. 사실상 두 대학 모두 수능 성적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Q. 특목고나 자사고 대비 일반고 학생의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A.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에서는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짙습니다. 반면 이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에서는 일반고 학생의 합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Q. 메디컬 계열 지원이 목표라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A. 메디컬 계열은 내신이 아무리 우수해도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격이 어렵습니다. 보통 4개 영역 합 5등급 또는 3개 영역 합 5등급 수준의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여기에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2027학년도 490명 증원에서 2028학년도엔 총 3671명으로 확대되는데 이는 합격선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전형은 합격선이 낮아질 수 있고, 낮은 전형은 경쟁률이 상승하는 등 예측이 어려운데요. 결국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는 수능 실력이 핵심입니다.

2027~2030학년도 지역의사제 증원 예정 인원

구분	2027학년도	2028~2029학년도	2030학년도 이후
입학정원	기존 의대 490명	613명	613명
증원	공공의대·지역의대 -	-	200명
추가증원 총 규모	490명	613명	813명
총 선발 인원	3548명	3671명	3871명

- Q. 2028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많은 학생이 내신과 비교과에 집중하면서 수능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모든 전형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과 메디컬 계열에서는 필수 요소입니다. 결국 최상위권 대학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배윤경 기자

도움말 남윤곤 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



입시 완전정복

공인번호 : 재정경제부 제 2024-254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매일경제 아카데미)



*공식 인스타그램
@mk.teenz



*공식 유튜브
매테나



53회
경제 · 금융 이해력인증시험
틴매경 TEST

시험일 | 2026년 5월 30일(토)

접수기간 | 2026년 4월 20일(월)~5월 18일(월)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장승준, 위정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